



# 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1학기독서파이팅'

1주차	일시	3월 26일 16:50 (장소명: 학술정보관 그룹스터디실)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박예지(2311044)	○
		최민서(2311119)	○
		김도희(2331270)	○
이승재(2331272)	○		
진도	도서명: 동물농장	진도페이지: 작가소개, 7p. ~ 39p.	
토론 내용	<div style="text-align: center;">  <p>[좌측부터 박예지, 이승재, 김도희, 최민서]</p> </div> <p><b>토론내용 작성</b> (간단한 자기소개 후 앞으로의 진행 방식과 다음 모임의 날짜를 정함.)</p> <p>① 10분동안 한 챕터를 묵독한 후, 그 내용에 대해 질문이나 의견을 이야기하고 또 다음 챕터를 읽는 방법을 채택</p> <p>② 4/9(2차시), 4/30(3차시), 5/7(4차시)</p> <p>-----</p> <p><b>모든 클럽원</b>_조지오웰이 본명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p> <p><b>이승재, 김도희, 최민서</b>_스탈린 체제가 어떠한 배경과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도움을 받고 싶다.</p> <p><b>박예지</b>_스탈린 체제는 1924년 레닌의 사망으로 권력을 잡은 스탈린의 통치하의 정치체제를 뜻한다. 작가소개에서 이 책이 이를 비판한다고 언급한 것은 스탈린 정치체제의 확고한 사회주의 체제에서 비롯된 어두운 면을 이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p> <p><b>이승재</b>_인간의 것을 타부시하고 있는데, 글자는 왜 사용하는지?</p> <p><b>김도희, 최민서, 박예지</b>_공감한다. 앞으로 어떤 양상을 보일지 궁금해진다.</p> <p><b>최민서</b>_고양이의 투표권이 두 개인 이유는 무엇일까?</p> <p><b>최민서</b>_인간의 손을 빌리지 않고 수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수확량이 증가했다는 말에 놀라웠다</p> <p><b>김도희</b>_이 것은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동물 모두가 노동에 참여하므로 노동의 투입량이 늘어나 도출된 결과라고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p>		

	일시	4월 9일 16:50 (장소명: 상상베이스 그룹스터디룸)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박예지(2311044)	○
		최민서(2311119)	○
		김도희(2331270)	○
이승재(2331272)		○	
진도	도서명: 동물농장	진도페이지: 40p. ~ 61p.	
2주차	토론 내용	 <p>[좌측부터 최민서, 박예지, 김도희, 이승재]</p> <p><b>토론내용 작성</b>  (활동방법에 대한 강호정 교수님의 의견) 책은 집에서 읽고 대면으로는 토론 활동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감상문을 작성하여 교수님께 작접 쓴 글을 첨삭받을 수 있도록 한다.</p> <p>-----</p> <p><b>최민서</b>_나폴레옹의 독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돼지를 제외한 동물들을 보고 어리석은 군중이 떠오름.</p> <p><b>이승재</b>_왜 이런 독재가 발생한 것일까? 벤자민, 가장 방관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 방관자인 당나귀 벤자민의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p> <p><b>박예지</b>_제일 속내를 알 수 없는 캐릭터, 비겁하다고 느꼈다. '당나귀는 오래 산다'라는 말에 어리둥절했다. 책을 다 읽으면 의미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정치에 참여하지 않음, 해탈한 것이 아닐까한다.</p> <p><b>김도희</b>_무능력한 지식인/ 이 책의 내용을 이끌어가는 것이 혁명이라는 주제인 것 같은데 혁명에 있어 지식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벤자민은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p> <p><b>최민서</b>_나폴레옹이 본격적으로 독재를 시작한다. 약간 이상함을 느끼면서도 동물농장은 나폴레옹의 뜻대로 흘러가는데, 왜 그럴까? / 떠난 몰리가 다시 돌아올까?</p> <p><b>이승재</b>_스노볼과 나폴레옹의 관계가 두 농장주의 관계와 비슷한 것 같다</p> <p><b>김도희</b>_스켈러가 앞잡이로 나서서 유창한 말로 나폴레옹의 지지를 유도하는데, 라디오로서 사람들을 선동했던 역사가 떠올랐다</p> <p>-양들이 생각 없이 '두 발은 좋고 네 발은 나쁘다'를 외치며 동물들을 선동하는 모습은 현실 사회에서 무언가를 비판 없이 답습하는 태도에 경각심을 가지게 해준다</p>	

	일시	4월 30일 16:50 (장소명: 학술정보관 그룹스터디실)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박예지(2311044)	○
		최민서(2311119)	○
		김도희(2331270)	○
		이승재(2331272)	○
	진도	도서명: 동물농장	진도페이지: 모든 페이지
3주차	토론 내용	<div data-bbox="643 600 1342 1122" data-label="Image"> </div> <p data-bbox="730 1133 1251 1167">[좌측부터 박예지, 김도희, 이승재, 최민서]</p> <p data-bbox="491 1218 663 1252"><b>토론내용 작성</b></p> <p data-bbox="491 1258 1490 1337">(2주차의 교수님의 피드백에 따라 책을 미리 읽어오고, 각자 토론/토의 주제를 제시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눔)</p> <p data-bbox="491 1344 596 1368">-----</p> <p data-bbox="491 1388 1490 1464"><b>최민서</b>_스노볼의 탈출 이후에 나폴레옹이 스노볼의 짓이라고 치부하는 사고는 정말 스노볼의 짓인가?</p> <p data-bbox="491 1473 1490 1592"><b>이승재</b>_아니다. 나폴레옹이 스노볼을 존재하지도 않는 공공의 적으로 만들어서 동물들을 현혹시킨 것 같다. (동물들을 결집시키고, 자신의 독재로 일어나는 불만을 스노볼의 책임으로 돌리기 위해)</p> <p data-bbox="491 1601 1490 1677"><b>박예지</b>_결말에서 돼지가 인간과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된 동물들은 다시 혁명을 할 수 있을 것인가?</p> <p data-bbox="491 1686 1490 1805"><b>이승재</b>_그렇다) 돼지가 과거 인간에 대한 혁명을 일으키는 씨앗을 심어 주고, 동물들이 혁명에 성공했듯이 이제는 깨어 있는 다른 동물들이 돼지에 대한 혁명을 일으키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p> <p data-bbox="491 1814 1490 1933"><b>김도희</b>_아니다) 혁명을 피할 두뇌를 가진 동물이 부패했고, 혁명을 성공할 무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메너 농장의 부조리함을 기억하는 동물들도 거의 없어졌으므로 불가능하다.</p> <p data-bbox="491 1942 1465 1975"><b>최민서</b>_나폴레옹이 동물 농장의 이름을 폐지하고 메너 농장으로 돌아간 이유는?</p> <p data-bbox="491 1984 1241 2018"><b>최민서</b>_1) 돼지가 처음부터 인간이었나? 모두를 속인 것인가?</p> <p data-bbox="491 2027 1241 2060"><b>이승재</b>_2) 다른 인간 소유의 농장과 동등한 지위를 얻기 위해</p> <p data-bbox="491 2069 1465 2103"><b>박예지</b>_3) 돼지들이 완전히 인간과 같아진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작가의 의도</p>	

	일시	5월 7일 16:50 (장소명: 학술정보관 그룹스터디실)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박예지(2311044)	○
		최민서(2311119)	○
		김도희(2331270)	○
		이승재(2331272)	○
	진도	도서명: 동물농장	진도페이지: 모든 페이지
4주차	토론 내용	<div data-bbox="703 600 1278 1025" data-label="Image"> </div> <p data-bbox="730 1039 1251 1072">[좌측부터 김도희, 박예지, 이승재, 최민서]</p> <p data-bbox="491 1081 1492 1328">(강호정 교수님의 의견) 남은 모임에서는 책 내용에 관련된 한 가지 주제에 대해 심도있는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한다. 예시) ‘러시아의 역사’, ‘평등’ 등 ----- 1주차에 팀원 대부분이 의문을 가졌던 러시아의 역사 중 사회주의와 관련한 내용을 학습하기로 결정했다. 학습 콘텐츠로는 프로그램 &lt;별거벗은 세계사-스탈린편&gt;을 이용하였고, 부족한 지식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사회주의의 시작(러시아 혁명)을 초래한 러시아의 역사적 배경을 위주로 시청하였다.</p> <p data-bbox="491 1337 1492 1583">&lt;산업혁명에 대한 마르크스의 예상&gt;_ 산업혁명의 도래 이후 부르주아(공장시설과 자본을 보유한 계층)와 프롤레타리아(노동자, 가진 것은 지식들 뿐인)는 빈부격차로 인한 심각한 갈등을 겪었는데, 이에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한 영국과 프랑스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사회주의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두 나라는 당시 식민지 수탈로 벌어들이 막대한 부가 있었기에 노동자 계급도 그리 어려운 형편은 아닌지라 혁명은 일어나지 않았다.</p> <p data-bbox="491 1592 1492 1921">&lt;농노해방령과 부르주아의 횡포 그리고 황제의 무능&gt;_ 혁명을 불러올 정도의 힘겨움은 19세기 러시아에 존재했다. 농노해방령은 1861년 농노를 해방시킨 사건을 말하는데, 노예제도만 폐지됐을 뿐 시세의 2배에 달하는 토지 상환금, 6%이자, 대기근 등으로 백성들은 이 전보다 더욱 힘든 삶을 살았다. 또한, 나은 삶을 위해 도시로 이주한 백성들에게는 부르주아의 횡포가 행해졌으며 경기 불황으로 인해 산업혁명의 후발주자인 러시아의 산업은 뿌리 채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설상가상으로 황제의 무능으로 인해 러시아 백성들은 독일과의 전쟁에서 많은 목숨을 잃었다.</p> <p data-bbox="491 1930 1492 2092">러시아 사람들은 위와 같은 러시아의 부정적인 사회 모습을 사회주의를 통해 해결하고자 했던 것 같다. 분명 의도는 좋았는데, 어찌다가 혁명가 스탈린은 독재자가 되고 사회주의 체제 또한 부정적으로 변화했는지 의문이 들었다. 뒤에 내용을 각자 공부를 하는 것으로 약속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p>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활동 후기	1	박예지(2311044)	<p>책을 읽으면서 관련 생각과 인상깊은점, 느낀점을 나눠보며 나와는 다른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다. 질문을 두고 답을 하는 과정에서 가지고있던 권력의 부패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으로 남을 것 같다. 더불어 논의 도중 일전에는 보지 못했던 책의 세세한 부분을 알아본다든가. 혹은 내가 놓친 중요한 부분을 알아보는 좋은 기회였다. 또한 이 책의 시대적 배경을 탐구하며 책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아보며 뜻깊게 시간을 쓴 것 같다.</p>
	2	최민서(2311119)	<p>독서 모임이란 걸 처음 해봐서 처음에는 막막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책을 읽고 서로 떠오르는 생각을 나누며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 것인지 알게 되었다. 앞으로 독서 모임을 좀 더 즐겁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 열심히 책을 읽고 열정적으로 모임에 임해 준 클럽원들 모두 너무 고맙다.</p>
	3	김도희(2331270)	<p>바쁘다는 핑계로 무언가 강제하는 수단이 존재하지 않으면 대학에 와서는 책 한 권을 제대로 읽고 한 문장씩 곱씹으며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이번 독서토론 활동을 계기로 허투루 보냈던 시간들에 '독서'라는 의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이 개인적으로는 뿌듯하게 느껴진다. 고전 문학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시대의 필체와 번역본 특유의 어체 등 눈에 보이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때의 상황을 이해하고 생각하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상황에 고전 문학의 내용을 대입하여 생각해볼 수 있었던 점도 흥미로웠다. 뿐만 아니라 내가 책을 읽으며 느꼈던 의문점을 홀로 풀어내기 어려울 때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와 나누며 함께 답을 찾아내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 의미있는 독서토론 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다.</p>
	4	이승재(2331272)	<p>강호정 교수님께서, “고전의 정의를 내려보자면 안 읽어도 읽은 것 같은 책이 아닐까?”하고 웃으면서 말씀하신 적이 있다. 나에게도 동물 농장이 그런 책 중 하나였던 것 같다. ‘워낙 유명해서 읽지 않았음에도 쉽게 언급할 수 있는 책’ 말이다. 그리고 마침 이번 활동에서 동물농장을 읽게 되면서, 특히나 독서모임이라는 방법을 거쳐 읽게 되면서, 나는 고전에 대한 내 나름의 정의를 내릴 수 있었다. 내가 깨달은 고전의 의미는 어느 문화권에 있던.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던, 모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책이다. 러시아가 아닌 한국에서 자란 우리가 각자 다른 전공 지식을 가지고 책의 주제를 고민했던 것이 그러했다.</p>
	5		